

‘니다’ ‘내다’ 하며 싸우는 것 얼마나 소모적인가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전국 전·현직 선원장 스님들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봉은사(주지 진화)는 9월 4일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 주석, 전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을 모시고 선지사 초청 일요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고우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을 해나가면 외적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와 ‘나’라는 분별심을 없애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 요지다.

정리=이아은 기자

보물은 내 안에 있다

마조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여기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묻자 대주 스님은 “불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마조 스님은 “자기 자신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버리고 쓸데없이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자리의 여러 분들도 각자의 보물창고를 갖고 있다. 그것만 발견하면 밖으로 찾아 헤맬 일이 없다.

부처님은 2600년 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29세에 출가해 6년 만에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원리를 말한다. 부처님이 외적인 조건을 갖춘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출가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다.

부처님은 권력·부·학문·무에 모두를 갖췄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청년이 된 부처님은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죽음과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을 했고, 사회적으로는 4성 계급에 대한 고민을 했으며, 국가적으로는 강대국과 약소국간 수로(水路)를 두고 다투는 전쟁에 대해 고민 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해지려 한다. 하지만 대개 밖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부처님은 외적으로는 다 가졌지만 만족을 못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부처님의 출가를 통해 배우야 한다.

우리 의식을 바로보고 변화시키면 외적인 조건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의식이 바뀐 상태에서는 역기능, 순기능이 번갈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순기능만 작용하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그것이다.

불교는 연기설 종교다. 연기설을 말한 중

교는 부처님 밖에 없다. 이 연기설은 과학과 일치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참선 교학 염불 절 등 여러 수행을 해 나가면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더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역기능(불행한 일)이 작용하지 않는 순기능만 작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없애면 행복해진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한테 불리하게 되거나 비난을 들으면 화를 내는 것이다. 내가 있으니 상대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상대를 갈라놓고 사고를 한다. 이게 자기존재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 ‘나’라는 카테고리 속에 자기 자신이 갇혔다.

우리가 상대적(너와 나를 분리하는 생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꾸어 생활하면 부처님이 돼 외적인 조건과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삶으로 바꾸려면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제일 빠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반야심경)에 쓰여있다.

(반야심경)은 270자이다. 그 중 오온계 공도일체고액(五蘊皆空度一切苦厄)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 중 핵심은 ‘공(空)’이다.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상대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뀌어 매일 좋은 날이 된다.

오온(五蘊)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다. 색(色)은 모든 형상을 일컫는데 광범위하거나 몸에 국한 시켜 생각해보자.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육체와 정신이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왜 공하다고 했을까.

현대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최근 (파이만의 여섯 가지 물리이론)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은 불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책에서 파이만은 대중 앞에서 “수억만개의 원자덩어리가 여러 분들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면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라는 육체와 정신을 단일한 독립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과학자는 ‘나’라는 존재를 수억만개의 원자덩어리로 봤다. 어느 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여러가지가 모여서 됐다 뜻으로 ‘연기(緣起)’라고 표현했다. 연기는 단일로 독립돼 존재하지 못한다. 수억만개가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존재한다. 원소 검지 A와 오른손 검지 B 두 개



고우 스님은... 고우 스님은 25세 때 경북 김천시 청암사 수도암에서 출가한 후 거의 평생을 봉암사, 범어사, 각화사 등의 선원이나 암자에서 수행 정진했다. 1968년 결사도량으로 유명한 문경 봉암사에서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졌고, 이후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 2008년 대종사에 올랐다. 40여 년 선의 길을 걸었던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재가 불자를 상대로 강의에 나서는 등 선의 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 오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현학적인 불교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불법을 명쾌하게 설명, 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수 억 만개 원자덩어리가 있는데 어느 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공(空)과 만물의 연기(緣起) 통해 연기적 생성 안다면 갈등 사라져

를 모으면 삼각형이 된다. 이 삼각형에 C라는 이름을 짓는다. A, B가 연기로 인한 삼각형이 돼 C가 생성됐는데 우리는 자꾸 C만 있다고 생각한다. A, B도 마찬가지다. 다른 존재들이 모여 A, B가 생성됐다. 그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면 힉스(higgs)라는 입자가 있다. (힉스라는 과학자에 의해 발견돼 ‘힉스’라 불어짐)

스위스 국경지방에서 수 조원을 들여 길이가 100m에서 27km길이의 터널에서 원자를 발견하기 위한 빅뱅실험을 하고 있다. 아직 물질이 되지 않은 소립자를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힉스’, 즉 ‘신(神)의 입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직 물질화 되지 않은 이 입자는 질량화 돼 있지 않다. 이것이 공(空)이다. 힉스는 일반 사람이 말한 공과 다르다. 부처님이 말한 공과 같다. 이 공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무엇을 만나면 질량화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무한한 사고를 하게 된다. 참

선을 통해 도를 깨달으면 100% 무한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의 4가지 조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수행하면 그 수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해 ‘내가 절에 오래 있었다. 내가 수행을 몇 년 했다’ 등 아상(我相)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은 수행 안한 것 보다 못 할 것이 된다.

수행을 통한 대표적인 효과 4가지를 말해주겠다.

첫째, 무아(無我), 공(空)을 이해하면 100% 깨닫지 못해도 생각이 바뀐다. 남과 비교 하지 않게 된다.

그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해지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그 교만이 나를 몹시 비참하게 만든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매우 귀중해진다. 나도 불교를 만나기 전 얼마나 비교를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덕분에 절에 오양 왔다가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스님이 됐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니 남도 사랑하게 됐다.

시골에 가면 새끼들이 있다. 짝이 있고 멍석과 가마가 있다.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다. 재료는 모두 짚으로 돼있다. 이

짚이 무아, 공이다. 이 지푸라기를 이해하면 아내와 남편 간에 소통이 잘된다. 국회에서 여·야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와 국민이 잘 되자고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를 괴롭히면 제도를 만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단과 목적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불교를 알면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일하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인정을 받으면 보수도 더 받고 존경도 받게 된다. 열심히 즐겁게 일한 사람은 인격이 형성된다.

세 번째는 자주의식이다. 수처자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곳에 직장인이 많을 텐데 직장에서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 하는가. 아니면 ‘월급이나 받고 그냥 일하지’라고 생각하며 일하는가? 월급을 목표로 일하면 주체의식도 없는 거다.

조계종 스님이 1만 3000여 명이 있다. 그 가운데 주인의식을 갖고 중생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 될까. 신도님 중에도 주인 의식을 갖고 ‘봉은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잘 못 살면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냉소주의에 빠진다. 그 집단이나 짚은 절대로 잘될 수 없다. 방만주의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면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스님들도 수행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인의식이 참 중요하다.

최근 무상급식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다. 복지가 잘못 이해돼 주인의식을 잃는다면 그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이거나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복지가 된다. 주인의식 없이 ‘무엇을 받아먹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지도 아니고 정신적 복지도 아니다.

네 번째는 소통이다. 지금 이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여야 정치대립, 노사갈등, 이혼률 증가 등 사회갈등이 심해지는데 전부 소통의 부족 때문이다.

소박한 이야기 하나 하겠다. 노사관계를 보자. 소통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사측에서 노동자를 ‘아, 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분들 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는구나. 저분들 덕을 보는구나’라고 사실대로 본다. 노동자는 사측을 ‘저분은 능력이 있어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어 우리 월급주고 가족들 먹고 살게 하는 고마운 분이구나’라고 사실대로 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갈등지수가 가장 높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갈등현상으로 인해 없어지는 돈이 GDP의 30%인 270조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인 318조원과 맞먹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오인데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것이 더 크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우리의 존재원리를 바로 보자는 것이다. 혹자는 사람의 존재원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중생의 종류를 9가지로 분류했다. 구류중생 중 네 가지는 대관습화(嗔卵攝化) 사생(四生)으로 분류한다.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지에서 태어나는 것, 스스로 화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깐 나부터 키우는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모양만 다를 뿐 나와 같은 존재니까.

집에서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가족들이 항상 ‘니다, 내다’하면서 싸워야 하는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소모적인가.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주변인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고 열심히 수행하자.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 보급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의 보시기는 불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승 반원 010-3599-6653

금산선원 : 부산시 사상구 감전 1동 122-39

산승 반원은 정진기도를 하면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였습니다. 통도사 문수원에 주석하시는 수안 큰스님 은사로 모시고 반야심경에 대한 지도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20여년을 반야심경사경 참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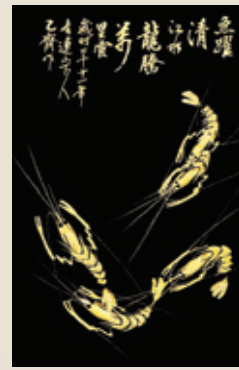
반야심경 사경기도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도에 이르시라고 하시부터 참선으로 사경을 하며 백중날 회향하고 또 불자님을 위하여 원상을 그리고 육바라밀을 마음에 담아 사경을 하여 인연 있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행복하고 소원성취 하라고 20여년을 보시해 왔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것은 하나요, 우주 전체입니다. 경을 육각으로 쓴 것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가운데 육각에서 생기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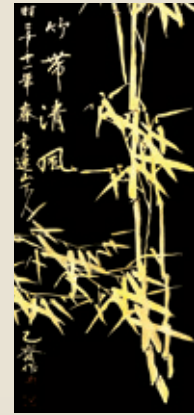
15년간 뇌종양 투병 생활 속에 고통을 참으며 반야심경참선 기도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말일(부처님의 가피력으로 9년간 사경 참선 공덕으로)그날 밤에도 자시에 사경 후 머리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팽 하기에 이제야 육신을 버리는구나 하고 저 무거운 육신을 더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 주신분이 나타나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갈 수 없다며 25년 생명 연장이라 하면서 죽비로 이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마는 뺨 뚫려 버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은 간곳없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산승 반원은 새 생명으로 반야심경 사경에 혼을 담아 수행정진 하고 있습니다. 산승 반원은 생을 다하는 날까지 사경 참선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기도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을 소지하게 되시면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을 소장하고 보시하시는 분은 향후 불사를 할 경우 반드시 건립비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산승 반원 합장



• 작품명 : 새우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가가 : 70,000원



• 작품명 : 竹
• 사이즈 : 가로 22.5cm x 세로 59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가가 : 100,000원



• 작품명 : 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가가 : 50,000원



• 작품명 : 연꽃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가가 : 50,000원



• 작품명 : 십장생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석재 혼합
• 작가가 : 300,000원

위 작품은 불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일체 서명한 선생님께서 기증하는 작품입니다. 아래 작품을 소장하시어도 불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체 선생님의 작품세계는 홈페이지 www.sycart.co.kr 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